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10월 19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19(수) 오전 07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10. 19(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담당과장	철강화학과장 김종철(044-203-4280) 섬유세라믹과장 주소령(044-203-4390)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유법민(044-203-4330) 신재생에너지과장 이진광(044-203-5160) 기업정책팀장 허정수(044-203-4830)	담 당 자	박태규 사무관 (044-203-4282) 최승효 사무관 (044-203-4294) 김윤조 사무관 (044-203-4336) 박병기 사무관 (044-203-5172) 윤영범 사무관 (044-203-4831)

철강, 조선기자재 업종 기활법 승인 첫 사례 나와!

- 산업부, 하이스틸 등 총 4건에 대한 기활법 사업재편 추가 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0.19.(수)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 **지난 9월 3건의 승인에 이은 두 번째 승인**으로, 기활법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은 가능할 전망

<기활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승인업종	▪ 석유화학(2) ▪ 철강(1) ▪ 조선기자재(1) ▪ 섬유(1) ▪ 농기계(1) ▪ 태양광셀(1)
사업재편 유형	▪ 영업용 자산 양수도(4) ▪ 인수·합병(3)
승인기업 규모	▪ 대기업(2) ▪ 중견기업(3) ▪ 중소기업 (2)
지원요청사항	▪ 신사업 진출 연구개발(R&D) 지원(6) ▪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4) ▪ 스마트공장 보급 등 혁신활동 지원(3) ▪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2) ▪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1)

□ 특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9.30일) 직후, **처음으로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강관분야 사업재편 방향** :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 아울러, **전형적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앞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 차관, 정갑영 연세대 前총장) 등 당연직위원(4명), 국회추천위원(4명) 및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

○ 특히, 심의위원회 **이전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개최**(10.7일) 하는 등 **한층 깊이 있는 논의했다.**

※ 민간 심의위원 중 산업, 법률, 회계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중

□ 산업부는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승인기업별 사업재편 주요내용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윤영범 사무관(044-203-48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승인기업별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

1. 하이스틸

1 기업 개요

○ **강관제품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중견기업**

* 강관 매출액은 약 1,300억원('15)으로, 국내 생산능력의 약 6%(6위)

2 사업재편 배경

○ 저부가가치 강관은 **국내 생산능력이 이미 국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중국산 등 수입재가 국내 수요를 지속 잠식**

* 국내 강관 생산능력/생산량/가동율('15년) : 10,667천톤 / 4,928천톤 / 46.2%

○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조정,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을 통해 **산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3 사업재편 주요내용

○ 전기용접강관(ERW)**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을 매각**하고,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은 매각**, 1개 라인은 인천1공장으로 이전 설치

* 과잉공급인 전기용접강관(ERW)의 생산량을 연간 14,400톤 축소할 계획

○ 신규 설비투자 및 R&D를 통해 유망 분야인 **소구경(10인치) 아크용접(SAW) 특수 강관** 및 **내지진 대구경 각관** 생산 예정

4 기대효과

○ (**산업 측면**) **공장·설비의 매각**을 통해 저부가가치 전기용접강관(ERW) 생산라인을 **감축**하는 등 전기용접강관 **과잉공급 개선** 기여

○ (**기업 측면**) **설비·생산 조정, 신규 사업 진출**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 생산**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2. 리 진

1 기업 개요

○ **조선 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15년 매출액 103억원)

* 케이블 트레이, 멀티 코어 튜브 등을 생산하여 대형조선사에 납품중

2 사업재편 배경

○ 수요산업인 **조선업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심화** 및 **경영난 가중**

* 세계 선박 발주량(Clarkson, 백만 CGT) : ('08) 55.4 → ('11) 35.9 → ('15) 35.6

○ **조선 기자재 생산 축소**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발전 기자재 등 유망 사업분야로 진출

3 사업재편 주요내용

○ ① **송정공장 건물·부지 매각**, ② 송정공장의 **설비를** 미음공장으로 **이전**, ③ 미음공장에 **발전 기자재 설비 신규투자**

* 사업재편을 통한 조선 기자재 생산 감축효과 : (조선용 Cable Tray) 92.4%, (MCT) 21.9%, (Band Hoop) 63.7% 등

* 발전용 Cable Tray, PIT(Pre Insulated Tube), Multie Tie 등 발전 기자재 신규 생산

4 기대효과

○ (**산업 측면**) **공장 매각**을 통해 **조선 기자재 생산을 감축**하는 등 조선 기자재의 **과잉공급 개선** 및 조선發 **지역경제 충격 완화**

○ (**기업 측면**) 부채 상환 및 손실 사업부문 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생산 등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3. 보 광

1 기업 개요

○ 스포츠 의류용 **경량박지직물**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

* '15년 매출액 241억원, 특허·디자인·상표 등 다수 보유

2 사업재편 배경

○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국내업계 **생산능력 지속 증가**로 경쟁 심화

○ 국내 섬유산업은 **중저가 제품 위주의 생산구조**로, 개도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어려운 상황**

3 사업재편 주요내용

○ ① 자회사인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고, ② **에코프론텍스 설비 매각** 후, ③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 신설**

* 동 사업재편으로 2,160톤(우리 총 수출물량의 1.26% 수준)의 가공사 및 편직물 생산 설비 감축 예정

4 기대효과

○ (**산업 측면**) **중복설비·생산품목 조정**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

- 연사·가공사, 편조직물 등 생산품목 조정 및 업종전환을 통해 **생산효율 제고 및 국내 공급물량 조정**

○ (**기업 측면**) 업종전환, 생산품목 특화로 기존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신성솔라에너지

1 기업 개요

○ **태양광제품 제조** 상장 중견기업 ('15년 매출액 1,706억원)

* 국내 전체 태양광셀 생산능력(3,745MW)의 약 11.2%를 차지하는 4위 사업자

2 사업재편 배경

○ **국내 생산능력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의 공격적 설비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BSF형 태양광셀의 **과잉공급 심각**

* (국내 생산능력) 3,545MW, (국내 수요) 1,011MW, (중국 수입량) 699MW

○ 사업재편을 통해 **BSF형 태양광셀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잠재 수요가 풍부한 고부가가치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

3 사업재편 주요내용

○ **신성솔라에너지와 그 자회사인 신성ENG·신성FA를 합병**한 후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

* 국내 BSF형 태양광셀 생산량('15 → '17) : 3,545MW → 3,125MW (420MW 감축)

○ 신성ENG·신성FA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부문 일부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에 진출**

4 기대효과

○ (**산업 측면**) 국내 BSF형 태양광셀 시장의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

○ (**기업 측면**) 차세대 신제품 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병 3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